서울시민 다 아는 '화계사길' 사라지나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덕릉로로 지명 변경
수암스님, "도로명 변경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스님)가 정부의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화계사길' 지키기에 나섰다.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 도로명 부여 서울시 공지문에 따르면 기존 화계사길이 덕릉로로 변경된다"며 "경기도 별내면에 위치한 덕흥대원군의 묘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덕릉로'가 강북구의 새 도로명 부여에 오랜 세월 사용해온 '화계로'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화계사길은 화계사 인근 한신대입구부터 번동사거리까지 1.8km에 이르는 길이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화계사길은 덕릉로로 명칭이 변경됐다. 덕릉로는 화계사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면까지 이어지는 11.4㎞ 구간의 도로명이다.

이에 대해 수암스님은 도로명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덕릉로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 지역주민의 의견 등 도로명의 부여·변경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수암스님은 "화계(花溪)는 화계사 일대가 꽃골로 불리던 것에서 연유된 것으로 새 주소지 명칭은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지명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처에 화계사가 있어 '화계'의 지명이 화계사에서 유래했다는 종교적 이유로 '화계사길'을 폐지하고 덕릉로로 바꾸었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스님은 1949년 서울시 편입 당시 사용하던 '화계동'의 명칭, 1984년 서울시 공고에 의한 '화계사길', 화계중학교, 화계초등학교, 화계교회 등의 지역 명칭 등을 제시했다. 화계라는 지명이 특정종교의 이미지를 넘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며, 행정구역상으로도 이미 60여 년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지명이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또 수암스님은 변경된 도로명인 덕릉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암스님은 "덕릉은 조선왕조 선조임금의 부친인 덕흥대원군의 묘로 공식적으로 능으로 봉해진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덕릉으로 불리었던 것"이라며 "덕릉이 어디에 있고 누구의 능인지 아는 이가 없는데도 서울시민이 다 알고 있는 화계사길이 덕릉로로 바뀌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암스님은 "7월15일까지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찰 신도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화계사길'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화계사길이라는 고유 지명을 제쳐두고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름이 사라져야 한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현충일 행사 찬송가 연주 종교편향 행위 '도' 넘었다

종자연 "호국영령에도 특정종교 강요"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서 찬송가가 반복적으로 연주돼 종교편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정관계 주요인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와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추모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군악대는 추념식 직전에 열린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를 연주했다. 군악대가 호국의 형제 안장식 때 연주한 곡은 장송행진곡(RBH), 장송행진곡(Funeral March), 오제의 죽음, 영원한 안식, 자유의 새 등 5곡이다. 이 가운데 한 곡인 '자유의 새(Free as a bird)'는 크게 3파트로 나뉘는데, 그 중 일부분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Nearer my God)'이라는 찬송가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실은 7일 "현충일 추념식이 아닌 추념식 전에 실시한 호국의 형제 안장식 때 연주한 것"이라며 "이 곡은 일반적으로 장송곡으로 연주되고 있는 유명한 곡"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종교적 이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교계에서는 '현 정부의 종교편향이 도를 넘었다'며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충일 기념행사에서 찬송가가 국방부 군악대에 의해 반복 연주되었다는 사실은 종교분리의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 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 공식행사조차 장로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려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호국영령에까지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종교편향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종자연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앞장서서 구현해야 할 대통령은 국가공식행사에서 종교편향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라"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행사에서 위헌적인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본지는 국방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질의서를 보내고 9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회신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6월10일 현재〉

홍다영 기자

"왕실의궤 오대산에 보관해야"

'불교와 정책', 정부 행정조치 촉구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가 반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교와 정책(대표 영공·법응스님)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조선왕조의궤 오대산사고본은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와 정책은 "2005년 불교계를 중심으로 환수 활동이 시작되고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발족돼 1차 성과로 2006년 조선왕조의궤 오대산 사고본을 동경대학교가 서울대학교에 기증형식으로 반환하였다"며 "그러나 오대산사고본은 현재 서울대학교가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와 정책은 "환수위의 노력에 의한 2차 성과로 오대산사고본 잔여분이 올해 안으로 마저 반환되는데 정부는 문화재를 당초의 역사적 보관처가 아닌 서울의 국가기관에 보관하려고 한다"며 "수탈되었던 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반문화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불행을 겪을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또 불교와 정책은 '보관처 문제에 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는 문화재청의 답변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불교와 정책은 올바른 불교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된 모임이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 발표회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회장 현근스님)는 지난 4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제17회 불교미술사학 발표회를 개최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신용철 학예사와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한정호 학예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발표회에선 명지대학교 조태건 교수의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활작 시왕상 연구'와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이동은 위원의 '조선시대 치성광여래강림구도' 등 6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불교미술사학회장 현근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문화와 미술사학 연구 활동은 중앙 집중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 간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앞으로 불교미술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은 경남동부·울산지사장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6일 제21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에서 홍법사 창건주 하말분 여사로부터 육군훈련소 법당기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

"원력 올곧게 실천해야 참된 삶"

총무원장 자승스님, 부산 홍법바라밀제 법문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스님)는 지난 6일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21회 허공마지홍법바라밀제를 봉행했다.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어를 통해 호국불교정신의 계승을 역설하는 동시에 종단에서 중점 추진하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부산지역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법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며 가정과 사회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각자가 세운 원력을 올곧게 실천하는 것이 참된 삶"이라며 "전국 교구본사에서 뜻을 모은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의 5대 결사의 실현을 위해 부산 불자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홍법사 창건주인 하말분(법명 도명화) 여사가 논산 육군훈련소 신축법당 기금 1000만원을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전달하고 11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쾌척해 귀감이 됐다.

아울러 홍법바라밀제와 함께 열린 제1회 호국의 숨결 나라사랑 미술대회 및 백일장에는 초중고생 600여 명이 참가해 글과 그림으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겼다.

최병문 부산지사장

포교사단 제주총괄팀 호국영령 추모법회

조계종 포교사단 제주직할팀 제주시총괄팀(팀장 고경봉)은 지난 5일 제주시 충혼묘지에서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위령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진우스님과 30여 포교사가 참석한 이날 위령법회는 아미타 정근, 광명진언 21독송,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진우스님은 "현충일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법문했다. 이어 고경봉 제주시총괄팀장은 "우리 모두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대립과 반목 그리고 폭력과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포교사고시 합격자 연수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단장 임희웅)은 지난 4일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제16회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70명을 대상으로 2차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조계종 포교국장 남전스님의 '포교사의 역할과 자세' 강연과 권중서 포교사의 '불교문화 이론과 해설'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됐다.

임희웅 단장은 "봄이면 꽃이 핍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하여 한겨울 혹독한 시련을 견뎌 내야만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처럼 포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교육을 받고 품수를 받아야 한다"며 "교육에 참가한 예비포교사 모두 포교사 품수를 받아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2011 후기 지도자과정 모집안내

가. 모집과정 및 인원

과정 \ 인원		모집인원(정원)
지도자 과정	불교지도자 문화예술지도자(불교미술, 국악) 생사문화지도자 불교상담지도자 다도지도자	인원제한 없음

나. 수강내용 및 기간
- 수업은 매주 화·수요일 18:30 ~ 21:20(1, 2교시) 실시함
-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별로 선택하여 2학기(1년)까지 수강하며, 최대 4학기(2년)까지 가능함

다. 지원자격
- 불교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각 종단의 스님과 일반인
- 차원 높은 불교문화를 계승하여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고자 하는 예술인
- 신행단체의 간부 및 사회 지도급 인사로 불교문화 교류를 넓히고자 하는 분
- 모집 관련업계 종사자
- 학력제한 없음

라.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마. 전형일정

지원서 교부처	교부 및 접수기간	전형일시	전형장소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2011.6.13(월)~8.31(수) 9시~17시	수시전형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100주년 기념관 4층)

바.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사.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사진 4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아. 전형료 : 없음

자. 특 전

(1)각 사암 중진급 스님, 불교단체 임원, 불교 교양대학 수료자, 포교사, 국악인, 불교미술종사자, 문화예술, 생사문화 및 불교상담 관련단체 임직원은 전형에서 우대함
(2)신입생 전원에게 수업료 50%를 기본적으로 감면하고 장학규정에 따라 추가 감면
(3)본교 의료원(양·한방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 부여
(4)문화예술, 불교상담 지도자과정 2년(4학기) 이상 수료자는 소정의 자격 인증서 수여(대학원장명의)
(5)생산문화(장례문화) 지도자과정 2년(4학기)이상 수료자는 장례지도사 1급 자격증 수여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학사운영실
☎ (054)770-2393~4
홈페이지 : http://gsb.dongguk.ac.kr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지도자

제4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운영되는 법회, 불교학교, 템플스테이를 위하여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지도자"라는 주제로 제4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반짝 반짝 빛나는 햇빛처럼 지도자 여러분들의 열정이 모여 더욱 반짝이는 여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불교학교 운영을 위하여 많이 동참하시어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 시** : 6월 19일 일요일 오전 9시~오후6시 (1일 교육)
- **장 소** : 다보원 법당(서울 마포구 마포동 불교방송 3층)
- **참가대상** : 불교학교를 준비하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 지도자 및 법사, 스님, 포교사 신행단체 실무자 등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선착순 200명
- **참가비** : 5만원 (교재, 재료비, 기념품, 식대 포함)
  - 대한불교조계종 어린이지도사·청소년지도사 50% 할인
  - 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제주도, 해외, 군종병 3만원
  - 본회 후원회원 무료
  - 접수된 참가비 환불 불가(강습회 후 교재, 기념품 발송)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02) 738-7860(代) (본회 사무국)
- **강습회 프로그램**
  1) 환영의 시간 — Ice breaking, 단순율동으로 긴장감 해소
  2) 함께하는 나눔놀이 — 지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놀이 지도법
  3) 나눔의 발견 —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4) 실천하는 불교학교 — 유익한 불교학교 운영법
  5) 즐거운 찬불가 율동&레크댄스
- **접 수** : **선착순 200명 전화, 인터넷, FAX 접수**
  - 홈페이지 www.burec.org
  - 입금계좌 국민 006001-04-163577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FAX (02) 738-7863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도 경